

“전북 균형발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해야”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시도의회협의회장협의회서 건의

김관영 도지사, 韓 국무총리와 면담 통해 현안 건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새만금 개발 비전 제시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주요 핵심사업의 2025년도 국가 예산 반영과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총 5개의 주요

사업에 대한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각 사업은 전북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은 첨단 농업 및 환경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 사업으로 평가되며,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는 고령화 사회 대응의 선도적

사례로 정부와의 공동 로드맵 수립 등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통한 신속한 용지 조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하계 올림픽의 전북 단독 또는 서울과의 공동 개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을 지역 성장과 문화 교류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및 개발 속도 가속화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무총

리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며, “이번 지원 요청이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막바지에 접어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11월 26일 기준)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큰 성과'

부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시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적과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먼저 행정위원회는 인권법무과정의 인사 부적절, 과도한 지방채 발행, 혁신융합문화센터 운영 부실,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장연구원 실질 연구 필요, 직속부서 출연기관의 의회 협력 관계 미흡, 근거가 부족한 예산 편성 문제, 체납 징수 등 세수 증대 노력 부족, 장기미집행 관련 사업의 지연 추진 등 다양한 내용이 지적 대상이 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료폐기물 위법행위 지도 감독 소홀,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주차장 부족, 아동보호구역 문제, 학대피해노인 전용인프라 확충 부족, 환경관리공단 설립 용역 재차추기 의혹, 생활폐기물의 잦은 수거 체계 변경, SRF 사용 불허 시점 문제, 미흡한 공인일몰제 대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자 선정 공정성 확보 문제, AED 관리감독 소홀, 저출산 대응 문제 등이 지적됐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최명희문화관 부실 운영, 후백제의날 지정 필요성, 산하기관 부당하고 구제 불구 제심 준비 예산낭비 우려, 정보문화진흥원 조



지난 18일 진행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 혁신 필요성, 기업유치 실적 부진, 지역 드론 업체 발굴·육성, 전주푸드센터 운영 활성화 주문, 김치산업관 재정 손실, 스마트팜 지원사업 운영 미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사 컨벤션센터 디자인 당선작, 예코시티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환산, 롯데타일발라스 협약 내용 변경 의혹, 주민참여사업 도덕적 해이, 전주-원주 시내버스 시간간격,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조화 대책, 그린파크 지원사업 예산 낭비, BRT 연내 착공 무산,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이해관계 충돌 의혹 등이 감사의 대상이 됐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선진정책을 발굴·공유하는 생산적인 감사로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매의 눈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군산시의회, 내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상정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9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우민 시장은 시장연설에서 “정부가 올해 국제수입 재추진을 하며 내국세 수입 22조원 결손을 예상했다”라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도’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올해보다 102억 증액된 1조 6547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군산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해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들

표명한다. 예술단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방만한 예술단 운영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집행부는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지난 14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김영일 의원은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다 하더라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 불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번 군산 시민과 지혜준 경제건설위원장에 진심으로 사죄했다.

앞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시장 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국회와 전북교육 현안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 국회의원실 보좌관들과 정책협의회 개최 의원 보좌관들, “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에 공감대... 적극 협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따로 만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력신장 등 교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북교육청 간부와 도내 국회

의원실 보좌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력신장, 교권보호, 미래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북교육 대전환과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 전북형 늘봄학교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 △학력신장 △유보통합 등을 소개하며, 이들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10대 핵심과제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 전북교

육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9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특례 개정, 유보통합 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정책협의회는 지역의 교육 문제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향후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조선시대 타임캡슐’ 이재난고, 보물로서의 가치와 위상

국회서 보물 승격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권 차원 적극 지원 약속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윤준병 국회의원, 전북대 이재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 안호영·정동영·정을호·안구백 국회의원 등이 총출동해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학술토론회는 ‘조선시대 타임캡슐, 이재난고 보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표는 안대희 교수(성균관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승룡 교수(부산대), 박철상 소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 구만욱 교수(경희대학교) 등 연구자들이 조선문화콘텐츠와 서지학·과학사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 발표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심덕섭 고창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윤준병·정동영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재난고’는 고창 출신의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환운씨가 평생에 걸쳐 집요하게 작성한 방대한 일기이자 연구노트로, 고창군은 이재 환운씨와 이재난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지난해 11월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휂자료로 등록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 승격을 추진 중에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재난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기록을 남겨 조선시대 백과사전이자 당시 생활사를 알 수 있는 타임캡슐이라고 할 정도의 귀중한 자료다”며 “‘이재난고’를 보물로 승격시키고 그 가치 확립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조선시대 타임캡슐’ 이재난고, 보물로서의 가치와 위상

국회서 보물 승격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권 차원 적극 지원 약속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윤준병 국회의원, 전북대 이재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 안호영·정동영·정을호·안구백 국회의원 등이 총출동해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학술토론회는 ‘조선시대 타임캡슐, 이재난고 보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표는 안대희 교수(성균관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승룡 교수(부산대), 박철상 소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 구만욱 교수(경희대학교) 등 연구자들이 조선문화콘텐츠와 서지학·과학사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는 한문종 소장(전북대 이재연구소)이 좌장으로 진행하여 박정민 교수(전북대학교)와 정성희 관장(실학박물관) 등과 참석자들이 이재난고의 보물 승격

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재난고’는 고창 출신의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환운씨가 평생에 걸쳐 집요하게 작성한 방대한 일기이자 연구노트로, 고창군은 이재 환운씨와 이재난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지난해 11월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휂자료로 등록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 승격을 추진 중에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재난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기록을 남겨 조선시대 백과사전이자 당시 생활사를 알 수 있는 타임캡슐이라고 할 정도의 귀중한 자료다”며 “‘이재난고’를 보물로 승격시키고 그 가치 확립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6일, 주요 사업장에서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혼불문화관에서 보강된 전시콘텐츠와 시설을 둘러보고 주변환경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혼불 하면 남원이 떠오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시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환경적 측면에 유의해 주길 당부하고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을 제안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덕과면 용산리 개발행위허가(토석 채취) 현장에서 담초 허가 면적에서 변경 허가를 내주게 된 상황에 대해 하고, 변경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며, 미세먼지의 발생, 덤프트러 등 공사 차량의 통행에 기인한 안전문제 등으로 주변 주민과 농민들의 불편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